

김포시, 제조융합혁신센터로 ‘산업혁신·일자리창출’ 기대



1 산업단지 전경 2 센터 장비 3 협동 로봇

김포시의 기업지원을 책임지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센터에는 다양한 전문기관과 기업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김포산업진흥원 등이 입주한다. 김포제조융합 혁신센터는 양촌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21년 준공된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됐다. 2018년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됐다. 올해 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포시가 의뢰한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통과되면서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모두 마쳤다.

시는 센터를 구심점으로 삼고, 제조업 중심인 산업구조를 반영해 제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 기업지원 전문기관 유치 및 집중화로 기업 통합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스마트공장 품질혁신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이 센터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스마트 산단 조성 등 산업구조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시험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스마트공장 유입 및 확산, 컨설팅 및 교육,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업무를 전담하고 현장 밀착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총 1천783명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져 김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입주 기관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기업지원 노하우가 공유되면 신사업 구상과 새로운 콘텐츠 창출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제조융합혁신센터가 단순한 기업지원이 아닌, 김포의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꾸준히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